목회자 컬럼

삯군의 몫이라도 했는지…

김화수 목사

"너는 삯군이야, 너는 삯군이라니까?"

조용히 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이 소리에 그만 본능적으로 귀를 꽉 막아보지만, 들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눈으로 보이기까지 하니, 삯군이 아니라고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교회 전임 교역자로 사역해온 지난 여섯 해, 되돌아보면 한순간 같은데,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임 교역자로 사역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모 교육전도사의 말에 솔깃해서 시작한 주님의교회 전임 사역은 첫날부터 당혹스러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스통 나르기, 물통 갈기, 화장실 청소, 경직된 사무실 분위기 등등, 내가 상상 속에 그리던 사역의 그림 속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군상들이 제각기들 주인공인 양 속속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전임 사역의 첫날이 마치 어제의 일인 것만 같은데 벌써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교회는 제겐 전임 사역의 첫 임지입니다. 말하자면 첫사랑인 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참으로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호영이의 암투병과 함께 시작된 심방 사역, 지난 여섯 해 동안 일 천번 이상은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 병원 등을 심방한 것 같습니다. 심방의 결과로 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해답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체험케 해주셨습니다. 넘치는 기쁨을 함께 맛보기도 하고,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오랫동안 가슴앓이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간섭하심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참으로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흔적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억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숨길 수 있을는지요. 나의 준비되지 못함이, 나의 의례적인 나눔이, 나의 사랑 없음이, 나의 무관심이 얼마나 교묘하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었던지요.

나는 삯군이었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 그럴듯한 영적 권위를 내세우는 목사가 되려고는 무던히 애를 써왔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함에는 항상 중간 이하의 점수였습니다. 어쩌면 녹을 받는 삯군만도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 속에 있는 조그만 가능성을 보시고 오늘도 복음의 현장에 저를 세워주십니다. 이제부터는 삯군이 아니라 참 목자로 서기를 기대하시며 말입니다.

떠남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기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주님은 여전히 저의 가능성을 보고 계심이 느껴집니다. 정말 세속적인 욕심을 내지 않고,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매순간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 그럴듯한 교계의 타이틀을 지닌 목사, 거창한 박사 학위로 권위를 내세우는 목사보다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사로 항상 기억되고 싶습니다.

예찬이가 네 살일 때 교회에 부임했는데, 벌써 아홉 살, 개구쟁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맑고 건강함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넘치는 사랑을 항상 느낍니다. 그동안 교우들로부터 받은 분에 넘치는 사랑과 기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실 새로운 임지에서 생명의 열매를 거둘, 생명의 씨앗으로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여호와 닛시"

함즐함울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 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제15호 (격월간)
발행일 1998년 11월
발행처 주님의교회 출판부

주님의교회
(138-220)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 · 고 교내)
주님의교회
T. 416-5181 F. 416-5180
인터넷 ID : http://www. Lord - church. or. kr

CONTENTS

1
삯군의 몫이라도 했는지…/
김화수 목사
2
입당예배를 앞두고 /
김도묵 장로
3
위기의 한국문명과 기독교적
소명 / 김용직 집사
이 분도 주님의 교회
4~5
특집 / 교역자 가족 이야기
6
한글과 기독교 복음 /
박재현 집사
의학상식 / 강윤식 집사
7
교회소식
교우동정
못말리는 천사들 / 형광등
8
시 / 서광석 집사
만화 / 김유니스(소년부)
법률상식 / 황용환 집사

특별기고

입당 예배를 앞두고

김도묵 장로

한국전쟁에 버금갈 민족의 시련이라는 IMF 한파 속에서도 줄지 않는 우리 교우들의 헌금으로, 교회는 약속한 기일에 건축비 분납금을 지불할 수 있었고, 유수한 건설회사들이 줄줄이 넘어지는데도 우리 박재준 집사님네 강산건설은 거뜬히 살아남아, 각종 자재가의 폭등에도 불구하고 희생적인 시공으로 이토록 훌륭한 건물을 완공하였으니,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크고 넓으신 사랑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학교 강당 하면 생각나는 고정관념 속의 건물과는 영 딴판인 외양과 색조에 어리둥절해 하거나, 못 참고 한 마디쯤 부정적인 코멘트를 했던 이들도 둘러져 있던 덮개가 다 벗겨지고 난 다음에는 "아, 이런 모습이었구나, 설계자 이귀영 집사의 의도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두고 두고 체험하게 되겠지만 이 건물은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뿐 아니라 그 기능에 있어서도 "미션스쿨 채플"과 수련관으로 완벽하면서도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학교의 각부가 필요로 하는 모든 방이 있을 뿐아니라 주중에는 교우들의 혼인예식까지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건물이 완공되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여진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특별히 정신여고의 지동소 교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이용욱 교목님, 학교 법인의 이사장 자격으로 참석하셨으면서도 교회 입장을 이해하고 애써주신 서울 노회의 증경 노회장이신 허일찬 목사님, "감사한 일이지요, 주님의교회가 이렇게 해주시니"를 연발하시면서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힘쓰신 중학교의 김정애 교장선생님, 그동안 테니스장이 없어져서 불편하셨을 교직원들, 그리고 본관 여러 교실과 운동장 사용을 허락해 주셨던 박영주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오래 간직해야겠습니다.

또한 기쁜 소식은, 학생 수련관의 방 16개 모두를 주일 교회학교 분반 공부방으로, 또 방학 중에는 우리 아이들의 수련회 장소로도 쓸 수 있도록 배려하시겠다는 고마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도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정신학교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분들도 주님의교회가 무엇이 불편할까 하면서 도와주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맺어진 두 기관이 서로 도와가는 아름다운 모습은 이 땅의 교회 안팎에 많은 것을 시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처음에 정신학교에 강당을 지어주고 주일에 예배당으로 쓰겠다는 계획은 지금은 분당에 있는 J 교회가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설계까지 끝내고 노회의 허락을 얻고자 했으나, 그 교회가 침례교단 소속이어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계획 자체가 공중에 떠있었는데, 이용욱 교목님의 우연한(주님의 계획된) 발언으로 우리가 신지하게 그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주먹구구식 계산으로는 될 것 같았지만 그것으로 일을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그때 교회 재정 흐름을 잘 알면서 계수에 밝은 박시만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연차적으로 분할 지급할 외상 공사 대금에 대한 예상 금리를 9%, 11%, 13%, 15%로 가정하고, 교회 헌금 증가율을 세 경우로 예상해서 열 두 개의 시나리오로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결론은 YMCA에 예치되어 있는 보증금 5억 여원, 완공전 이웃사랑 계정의 80% 내지 90%, 그리고 한 번 전교인이 참여하는 건축헌금을 하게 되면, 이 모두를 합쳐 공사대금의 절반 내지 2/3를 완공때까지 지불할 수 있고, 나머지는 후불로 몇 년에 걸쳐 분납하면 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당회장과 당회원들에게 보고를 하였고 당회는 물론이고 교인들간에 이 문제를 놓고 토론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재정적으로 가능하냐?' 에 앞서 '이 일이 합당한 일이냐?' 하는 교우들의 의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흔쾌히 납득, 동의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여고 강당을 빙자하여 우리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아 대부분의 교우들이 미션스쿨의 예배장소와 신앙수련관을 지어 기증하는 것이 미래의 한국 선교를 위한 훌륭한 투자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게 되어 한마음으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11월 1일에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축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졌을 솔로몬의 감격과 여호와를 향한 그의 노래가 우리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은 추수감사제를 겸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더더욱 감사한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은 우리는 아직 공사대금의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는 금액밖에는 지불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당하는 것이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02년에 가서야 완불하고 헌당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앉아 예배 보는 한 평의 건축비나 의자 한 개 값이라도 내가 감당하겠다는 정신으로 기도하고 봉헌해야 하겠습니다. 건축비 빚을 빨리 갚고 또 다른 선교와 구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다시 병들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고, 정신여고 강당보다 더 큰 선교의 역사에 우리 교회가 쓰여질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시론

위기의 한국 문명과 기독교적 소명

김용직 집사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1998년 한국사회의 희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 한국 사회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한국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폐허에서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압축고도성장을 달성한 한국은 88년 올림픽의 유치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불과 십 년 만에 우리의 신화는 대부분 허물어졌다. 압축성장은 부실성장으로, 자신감은 오만과 거품으로, 온정주의는 부패의 온상으로 그 평가가 변해버렸다. 그러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의 성격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참된 해결책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IMF 위기는 무엇보다도 한국 문명의 위기이다. 우리가 과신했던 한국 물질문명의 위기이다. IMF 위기는 물질화된 우리들의 우상인 '한강의 신화'를 강타했고 그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IMF 원년, 도처에서 붕괴하는 '한국인의 바벨탑들'을 본다. 지속적 고도성장과 대마불사의 한국적 신화의 붕괴는 기록적인 외환위기 아래에서 '사망선고'가 떨어진 금융기관의 통폐합과 퇴출, 대재벌의 잇단 부도와 신인도 추락, 증시의 300선 붕괴 등으로 나타났다. YS정권의 잇단 대형사고들—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붕괴—은 '한강 기적의 신화'가 전면 붕괴를 예고한 표피적 사건에 불과한 것이었다.

우리의 위기는 총체적 위기이다. 오래 전부터 우리사회의 거의 대부분이 부패와 부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들어왔다. 집권 군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재벌의 편법적 부의 축적과정은 한국형 정경유착 구조를 낳았고 권력의 유지와 재창출 과정에서 많은 비리와 부패가 독버섯처럼 퍼져나갔다. 총체적 부패는 총체적 위기와 신뢰 상실을 가져왔다. 정치계, 재계, 관계, 교육계, 법조계, 군, 언론 그리고 교회까지 편법과 '봉투'가 통한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오늘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정신적 위기이다. 한국 사회의 총체적 위기는 정신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속성장 과정에서 판을 친 이기주의와 편법, 부정, 부패는 황금만능주의와 천민자본주의 문화의 범람을 낳았고 이는 다시 전통유교 윤리의 약화로 이어졌다. 전통윤리의 약화와 물질문화의 공세를 한국의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 문화가 막아내고 대체하지 못한 것이 현 한국 사회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이때문에 우리는 현 위기가 기독교의 해이와 그로부터 오는 위기에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양적 성장에 대한 자만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는 순간 교회는 무기력과 해이에 빠지게 된다. 이 땅에 넘치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있건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하는 우리 사회의 양심과 비전을 보여주는 기독교인, 교회가 흔치 않는 것은 왜인가?

유럽 중세의 가톨릭이 부패와 부조리가 극에 달했을 때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루터와 캘빈의 개신교 개혁운동이 역사의 새 지평을 열었다. 이보다 덜 알려진 것이지만 중세 가톨릭을 타락에서 구해준 것이 성 프란체스카 사제의 수도원 건립 운동이었다. 사제직의 타락과 권력층의 개입을 배격하기 위한 성직자들의 자기정화 운동과 제도개혁을 통해 가톨릭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토인비는 지적하였다.

우리 사회의 IMF개혁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나' 자신, 우리 기독교인 자신들의 거듭남과 자기변화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10년전 주님의교회는 우리 사회의 만성적 위기—물질만능주의, 권위주의, 이기주의 등—에 교회가 타성화되어 가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인식 위에서 출발했다. 주님의교회는 새로운 10년을 맞아 먼저 고난과 회개의 운동에서도 앞장설 수 있으면 좋겠다. IMF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는 동료 성도들께 간절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의 좌절과 나의 간절한 회개'에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미래'의 싹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을 잃지 말자는 것이다.

오지 찾아 '맨몸봉사' 7년째
내전국-캄보디아 빈민구제 활동
이성민 · 김창숙씨 부부

이 분도 주님의교회

세계 최빈곤국이자 킬링필드의 나라 캄보디아에서 빈민구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성민 · 김창숙씨 부부. 평범한 직장인의 길을 걷던 이들 부부가 보장된 삶을 버리고 이처럼 험난한 봉사의 길을 택하게 된 것은 "어려운 남을 도우라"는 성경말씀을 실천하고자 함이었다.

대학 졸업후 (주)유니온에 근무하면서 모범사원으로 장래가 촉망받던 이씨는 89년 퇴사, 국제기아대책기구 한국지부에 자원한다. 생계는 외국회사에 다니던 아내 김씨가 맡았다. 92~95년까지 극한 상황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훈련을 모두 마친 이씨는 내전과 오지 지역만 골라 갖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긴급 구조와 개발 활동을 벌여나갔다.

95년 11월 당초의 계획대로 전가족이 오지로 가서 정착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아내 김씨도 회사에 사표를 내고 프놈펜에 정착했다. 계약기간은 3년이었다. 그러나 캄보디아인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보장시켜 주기 위해 3년 더 연장했다.

"스스로 택한 길일 뿐만 아니라 봉사를 통하여 기쁨을 얻기 때문에 힘든 줄 모른다"는 이씨 부부는 그러나 "때로는 에어콘 있는 방, 우리말로 된 책, 극장구경이 너무 그립다"는 인간적인 갈등도 털어놓았다.

(조선일보 98년 8월 19일자. '밖에서 뛴다, 대한민국 50년… 해외의 한국인' 요약)

특집 · 교역자 가족 이야기

어느 하루

강석영 전도사

1998년 8월 31일 월요일. 하늘은 맑고 종일 더움(?)

곤한 새벽잠을 깨우는 자명종 소리에 눈을 뜬다. 4시... 오늘은 새벽기도회를 인도하는 날이다. 5시 정각에 의관을 정제하고 교회로 출발. 기도회가 끝나고 잠시 개인 기도하는 시간, 오늘도 어김없이 모기란 놈에게 헌혈하고 월요 대청소 청소 후 갖는 몇몇 분들과의 아침식사는 언제나 꿀맛이다. 8시... 아! 오늘은 Full time 자유시간. 정호(경기고 2)와 경일(언북중 3)이는 벌써 학교에 가고 없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함께 해줄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 항상 미안하다. 몇 가지 간단한 것들을 준비한 후 아내(주진락)와 함께 안성으로 출발. 보름 만에 찾아온 나를 반겨주는 풋풋한 풀내음... 복잡한 서울에 살면서도 늘 마음의 안식처로 나에겐 소중한 평화의 고향, 작은 천국이다. 이곳에서의 8시간...우리는 또 일일 농부가 된다. 무성해진 잡초를 뽑으며 온갖 꽃들과 어린 나무들과의 대화, 한뼘 크기의 땅이지만 기특하게도 잘 자라 준 고구마. 오늘 점심 식사는 어설프나마 밭에서 딴 풋고추와 가지, 그리고 옥수수와 토마토도 식탁에 오른다. 땀으로 범벅된 3시간여의 밭일. 힘은 들어도 노동의 기쁨, 흙과 함께 하는 것에의 감사.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있으랴? 자연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진정 행복이리라. 서울로 돌아오는 저녁길은 항상 포근하다. 밤 9시… 그분께 나아가는 감사의 시간. 또 한 주간 최선을 위한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 23:1)*

세 여인과 한 남자의 이야기

강정호 목사

1982년 어느 봄날, 교회학교 교사로, 1부 예배 성가대원으로, 청년회 임원으로 1인 3역을 맡아 맹활약 중이던 청년 정호는 동료 직원의 소개로 일면식이 있던 금남씨가 교회에서 세례 받는 모습을 보고 청년회 가입을 권유하기 위해 아는 체를 하게 되었고, 이후 두 청년은 청년회와 성가대 봉사활동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으니….

그때 정호군과 함께 청년회에서 활동하던 후배가 있었는데 그 사나이의 은근한 권유와 중매(?)로 정호와 금남의 의미있는 만남은 시작되고, 이후 약 5년 간의 교제 끝에 1987년 10월 1일, 당시 장로회 신학대학 학부 4학년에 재학중이던 정호군과 노처녀로 가는 세월을 시샘하던 금남양은 드디어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사랑을 맹세하다.

약 1년 후인 1988년 9월 26일, 서울 올림픽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을 무렵, 유도의 이경근 선수가 금메달을 놓고 결승전을 시작하기 직전 저녁 8시 경, 금남씨는 산기를 느껴 금메달에 대한 관심으로 정신이 팔려 있는 정호씨를 재촉하여 병원으로 달렸고 금남씨는 다음날 아침 9시 40분에 아기를 출산하였으니 그 이름이 안나였다.

안나는 아기였을 때 별로였는데, 강 교육전도사는 그것도 모르고 맨날 "예쁜이"라고 불러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핀잔을 들었다나. 그러나 안나가 생후 13개월 되던 때 앓았던 가성콜레라는 안나를 별로 예쁜 어린이에서 눈에 쌍꺼풀이 진 예쁜 어린이로 탈바꿈시키고 말았으니, 고통을 통하여 사람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아기를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80년대 국가적인 캠페인에 현혹되어 둘째는 낳지 않으리라는 디짐의 표현으로(?) 첫 아이 이름을 〈안나〉라고 지었던 강 목사는, 그후 슬그머니 마음을 바꾸게 되었고 드디어 94년 7월 18일에 둘째 〈이슬〉이를 출생시키다. 〈이슬〉은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내려 주시는 것이란 사실에 착안하여 맑고 깨끗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라고 그렇게 지었다나.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착한 삶을 추구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이며,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우리들은 부모님이 행여 자신을 홀로 둘까봐 조바심하는 어린아이와 다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녀들을 통해 확인하면서 보다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다짐하는데….

욥의 세 딸

김성식 전도사

주님의교회 식구가 된 지도 햇수로 벌써 9년이나 되었다. 주님의교회에서 나처럼 다양한 직분을 경험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희귀할 것 같다. 서리집사, 안수집사,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그리고 내년에 안수 받으면 목사까지, 모두 5개의 직분을 경험하게 된다.

아내는 대학 시절 만나서 지금까지 함께 한 시간이 햇수로 27년이다. 오랜 친구 같이 마음이 잘 통하는 아내가 언제나 고맙기만 하다. 우리 집은 부자다. 정재경 장로님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 집이 제일 부자다. 딸부자 말이다. 처음 등록했을 때 이재철 목사님께서 등록 심방을 오셔서 주신 말씀이 욥의 세 딸 이야기였다. 그 이후로 이 말씀은 나와 아내의 세 딸을 향한 기도 제목이 되었다. 혹 딸 셋을 가진 분이 계시면 이 말씀을 나누시길.

큰 딸 수정이는 의학도의 길을 걷고 있다. 내년에 본과에 올라가는데 벌써부터 긴장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지만 아이의 적성에 맞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둘째 나정이는 중학교 3학년, 셋째 연정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다. 우리 집 교육철학은, 과정은 엄격하게 하고 결과에 대해선 책망않는 것이다. 아이들에겐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끝까지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가르친다.

목회자의 길을 시작하며 간절한 소원 한 가지는 내가 죽은 후, 함께 신앙 생활한 교우들이 김성식이란 목회자를 만난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이 기도를 다시 드려본다.

남자 하나, 여자 셋

김원재 전도사

우리 가족은 남녀성비가 불균형인 채 아내(최현옥), 두 딸(김유진, 김혜진), 그리고 나(김원재) 이렇게 살고 있다. 아들이 없어 종가집 종손으로서 체면에는 금이 가지만, 아내와 나는 두 딸로 인해 체면에 금이 아니라 다 무너져도 좋다고 하며 행복 속에 살고 있다. 사실 둘째 딸이 태어날 때 부모님은 내심 아들이길 바라셨다. 기대와 달리 하나님은 딸 혜진이(3살)를 주셨다. 그래서 그런지 둘째딸은 남자애 저리가라 할 정도로 씩씩하고 용감하다. 그 부작용으로 가끔 5살이나 많은 제 언니에게 무력(?)을 휘둘러 눈물을 쏟게 한다. 그럼에도 타고난 천사표 심성을 가진 큰딸 유진이(8살)는 그 동생을 끔직하게 사랑한다.

나에게 가족이란 주님을 제외하고는 인생 최고의 가치이다. 가족을 통해서 배우고, 느끼고, 누리게 된 기쁨, 사랑, 생명의 기운들을 삶의 원동력으로 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내는 나에게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안목을 주었고, 유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했고, 혜진이는 내면적 성숙을 이루게 했다. 바로 그들이 현재 나를 있게 한 장본인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가족을 다시 소개하면 ***"여자 셋, 여자 추종자 하나"*** 100% 여자 편(?)이다.

강석영 전도사 가족

강정호 목사 가족

김성식 전도사 가족

김원재 전도사 가족

예찬이와 함께, 경숙씨와 함께

김화수 목사

"학피태 놀놀놀"이라면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초등학교에 갓 들어갔던 예찬이가 4과목으로 되어 있는 학교 시간표를 바꾸어서, 10과목으로 만들어 놓은 하루 일과표의 과목들이다. 학은 학교, 피는 피아노, 태는 태권도, 그리고 놀놀놀은 그 이후 마지막 10교시까지 무조건 논다는 것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표는 거의 비슷하고 토요일은 '학놀놀놀놀'이다. 토요일은 학교만 갔다 와서 10교시까지 연이어 논다는 놀놀놀놀이다. 피아노 교습소나 태권도 도장에 가지 않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일은 '교놀놀놀놀교놀'이다. 주일은 아침에 주일학교에 갔다와서 놀놀놀놀 하다가 저녁 찬양예배때 또 교회를 가니까 교가 들어가고 또 다녀 와서는 논다는 놀이다. 누구보다도 놀기를 좋아하는 예찬이가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 시간표를 '학피태 놀놀놀'로 바꾸던 그때보다는 훨씬 더 의젓해지고 철이 든 것 같다. 하지만 놀기를 좋아하는 것은 여전하다. 바른 마음 바른 정신을 가지고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예찬이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순간 감사하고 있다.

아내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을 숨길 수가 없다. 목사의 아내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터인데도,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고 남편을 믿고 신뢰해준 아내가 고맙기 그지 없다. 더불어 살아온 지난 11년,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아내 앞에 당당히 서 있었지만, 이제는 사랑 하나만으로 당당하기엔 너무 이기적이란 생각이 든다. 아내와 더불어 살아갈 앞으로의 인생에 아내의 감사의 조건이 더 넘치도록 제대로 외조하는 남편이 되고 싶다.

꽃에서 향기를 기다리며

신철범 목사

저희 집은 딸 정윤(13개월)이와 제 아내(이진경) 그리고 저(신철범), 이렇게 세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윤이는 4개월 때 된장찌개를 먹기 시작했고,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한 단어가 엄마, 아빠가 아니라 ***'꽃'***(flower)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탁월한 언어적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기뻐했는데, 1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꽃'이란 단어에서 더 이상 진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곧 ***'향기'***라고 말할 것으로 믿으며, 그 말의 의미를 알 때가 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윤이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나타날 때를 소망합니다.

맘마 먹을 때 정윤이가 두 손을 모으고 ***'아멘***(묵음)' 하는 모습 속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윤이가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변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영수 회담

안사무엘 목사

아내에 대하여

만 16개월 된 의선이와의 전쟁은 보통 아침 7시 이전부터 시작된다. 아빠 다음으로 일찍 일어나는 의선이의 일과는 엄마가 잠든 사이에 시작, 아니 저질러진다. 하여 엄마는 해도 해도 끝없는 것이 집안 청소라며 녀석의 행패(?)에 머리를 가로 젓는다. 이따금씩 아내에게 셋째 하나 더 낳자고 농담하면 갑자기 얼굴에 분(憤)을 바르며 토라지려 한다. 어쨌든 수고하는 아내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예선이에 대하여

다섯 살 난 예선이는 요즘 한글 공부에 재미를 붙였다. 글공부가 제딴에는 신기하였는지 글쓰는 것을 즐거워 한다. 그림공부를 할 때는 낙타와 타조를 구분하지 못하여 어느 것이 그 놈인지를 혼돈스러워 한다. 이름도 생긴 것도 비슷해서 그런걸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듯이, 동물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멈칫한다. 아빠도 기독교와 예수교가 어떻게 다른지 구별하지 못하는데 뭘….

의선이에 대하여

하루는 녀석이 조용하여 엄마가 이리저리 찾아보니 화장실 변기 안에 올라가 앉아 그 안에서 물장난을 치고 있더란다. 최근에 의선이가 나에게 임영수 목사님은 언제 담임목사가 되느냐 묻기에 아마도 그분의 존함이 '영수'이기에 하나님과 영수 회담을 가진 후에 결정할 것 같다고 하였더니 의선이 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회담을 거부하시는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 보이는 것 같아 보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실인이여!

이기용(김효숙 목사 가족)

주님의 교회에서 '연경 아빠'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름을 잃고 교역자의 바깥 사람으로서 '연경 아빠' 된 지 한참이건만 아직도 가끔은 본분(외조)에 익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딸 연경이가 네 살 무렵,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 나이에 벌써 성에 대한 고정 관념 탓이었는지 엄마는 목사, 그래서 남자이고 엄마가 남자니까 아빠는 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연경이 자신도 남자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분별못함이 지금의 제게도 있습니다. 소명 받은 자를 돕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조 받고 싶은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바라고 주장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하늘에 계신 그녀의 영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작년에 돌아가신 장인)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을 듣곤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니 너는 힘써 도울지라. 내가 너도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의미임은 분명합니다. 나실인과 함께 하는 삶이기에 제 삶 또한 부끄러워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십자가 지고 가야 할 사명자의 두 어깨에 놓인 그 무게를 저로 하여금 나누어 갖는 자 되게 하옵시기를…."

나실인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국자 같은 인생이여!"

여성 전임 사역의 길에서 끌어주시고 밀어주시는 주님의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이 언제나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정한조 목사

오늘로써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237일이 지났다. 8개월에서 며칠이 모자란다. 그런데 우리 집은 거의 매일 전쟁이 일어난다. 웬 부부싸움이냐고 할지도 모른다. 사실 부부싸움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잠과의 전쟁이다.

우리 두 사람은 거의 선천적으로(?) 새벽잠이 많다. 그래서 새벽기도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잠과 사투를 벌여야 한다. 새벽 4시 50분이 되면 울리는 우리의 적인 알람들을 소개한다. 유선 전화기, 무선 전화기, 휴대폰, 알람시계들, 전자수첩까지 모두 6개이다. 거의 1분 간격으로 "따르릉, 따르릉", "삐리릭, 삐리릭", "꼬끼오, 꼬끼오", "안녕하세요, 일어나세요, 지금은 5시 정각입니다" 등등이 우리의 전투대상이다.

그래서 새벽기도회에 나가면, 비몽사몽일 때도 많지만, 그래도 핏발이 서도록 눈에 힘을 줘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너무너무 행복하다. 일생 동안 잠과 전쟁을 해야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새벽이 좋다. 예수님은 더 좋다. 하나님은 따봉이다.

김화수 목사 가족

신철범 목사 가족

안사무엘 목사 가족

김효숙 목사 가족

정한조 목사 가족

기고문

한글과 기독교 복음

박재현 집사

춘원 이광수가 매일신보에 소설 '무정'을 연재함으로써 한국 근대 문학의 첫 장을 연 것이 1917년이다. 같은 해 춘원은 잡지 '청춘' 9호에 "야소교(耶蘇教)의 朝鮮에 준 恩惠"란 글을 실었다. 그가 보기에 조선에 들어온 지 30여년이 되는 기독교는 '암흑하던 조선에 신문명의 서광을 전하여 준 최초의 은인이며 겸하여 최대의 은인'이었다는 것이다. 기독교가 사회에 베푼 은혜 여덟 가지 중 세번째로 꼽은 것이 한글을 일반적으로 쓰게 만든 것. 기독교인은 성경과 찬송가, 신앙서적을 보기 위해 한글을 배웠고 때문에 교인들은 남녀노유를 가리지 않고 글을 깨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섯번째에서 춘원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다. "제6은 한글의 보급이오, 한글도 글이라는 생각을 조선인에게 준 것은 실로 야소교외다." 천한 자들이 쓰는 글이라고 멸시받던 한글을 널리 쓰이는 떳떳한 글로 만든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다.

춘원의 시각은 옳다. 기독교는 무엇보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함으로써 이 일을 했다. 기독교는 성경을 한문이 아니라 한글로 옮겼다. 식자층이 아니라 평범한 대중을 겨냥했다는 말이다. 로스 선교사의 지휘로 조선인 이응찬, 서상륜 등이 애쓴 끝에 1882년 3월 24일에 최초의 우리말 성경이 만주 선양(瀋陽)에서 출간됐다. "예수셩교 누가복음젼셔" 평범한 사람도 읽을 수 있는 번역이었다. 심지어 이 번역은 평안도 사투리 성경이었다. 번역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의 관서인들이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번역된 성경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에 정착하여 복음을 전한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번역 원칙을 보자. 1911년에 언더우드는 이렇게 썼다. "보통 사람들의 언어에 익숙해져 있어야만 한다. 자칫 잘못하면 유식층 언어를 배우게 되어 오히려 읽어야 할 대중이 전혀 이해 할 수 없는 문장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세종 대왕이 한글을 지은 동기가 바로 이것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무식한 사람도 쉽게 배워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동시에 한글은 그저 평범한 글만이 아니라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월인석보 첫머리)여야 했다. 그래서 한글의 처음 이름이 훈민정음이다. 그러고 보니 한글과 기독교 복음은 너무도 잘 어울리는 쌍이다. 복음은 특정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다. 552돌 한글날, 한글과 우리말 성경사이의 깊은 관계가 새삼스럽다. 참 자유란 낮은 곳을 사랑하여 그 문화를 옷입고 끝까지 섬겼던 주님의 본을 받은 선교사들의 헌신을 이해하고 빚진 자로 자신을 정의하는 곳에서부터 맛볼 수 있을 것 같다.

얼은 말을 낳고 말은 글을 낳는다. 글은 혀를 통하여 들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듦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약 3:7-8). 성경은 혀를 키(rudder)로 비유하는데 배의 키는 작은 것이지만 큰 배의 방향을 조정한다(약 3:4).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약 3:5) "혀" 우리는 그것을 그다지 자주 거울로 보지 않는다. 그것을 특별히 가꾸지도 않는다. 미용사도 화장품도 다이어트도 필요없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격의 질을 결정지워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험담하지 않는 진실된 혀, 만족할 줄 알고 소박하며 조용한 혀, 범사에 감사하는 깨끗한 혀는 친절히 주님을 증거할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된 자들은 아름다운 혀를 가진 좋은 글과 친한 사람들 중에 있으리라.

의학상식

치핵의 근치적 치료 (1)

강윤식 집사(외과전문의)

입원도 안하고 특수한 방법으로 잘 고치는 데가 있다는 말을 듣고 강릉까지 가서 치핵을 치료받고 온 분이 있었다. 들은 대로 입원은 안 했지만 근처 여관에서 며칠 간 묵어야 했고 치료비도 많이 들었다는데, 한 달도 안되어 치핵이 도로 빠져 나오며 견딜 수 없이 아파해서 할 수 없이 다시 수술을 해준 적이 있다.

치핵은 보통 치질이라고 불리며 항문 안쪽의 혈관과 점막이 함께 늘어져 커진 것으로, 진행이 되면 변을 볼 때 빠져 나오게 된다. 우리 국민들 중 약 천만 명이 치핵의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120만명 정도는 약을 사먹거나 좌욕을 하는 등 자가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사람도 매년 약 6 만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흔하다 보니 이런저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떠도는 이야기도 많고 자칭 전문가들도 많아서, 용하다는 사람도 많고 비법도 많다. 과거엔 정보가 없어 귀동냥한 소문으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오히려 정보가 넘쳐 혼동을 일으키는 지경이 되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지 바로 알기가 어렵다.

치핵의 치료에는 크게 임시 치료와 근치적 치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혼돈에 빠지게 된다. 임시 치료는 치핵 조직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증상을 경감시키기 위한 치료로서, 보존적 치료와 비수술적 처치로 나눌 수 있다. 보존적 치료는 약물이나 좌욕 등의 자가치료를 말하고, 비수술적 처치는 치핵 조직의 부피를 일부 줄여 탈항의 정도를 완화시키거나, 출혈이 심할 때 지혈을 시키기 위한 목적 등으로 병원에서 간단히 실시하는 치료이다.

교우동정

▶ ***결혼***
- 박철수 · 최미경 집사 딸 성아 - 9/18
- 송정현 집사 차남 정지용 · 김미경 - 10/10
- 김태석 · 김홍도 집사 장녀 지나 · 강우공 - 10/13
- 이규성 집사 · 김형기 권사 딸 서정 - 10/3
- 장순길 · 이경희B 집사 딸 현주 - 10/15
- 이종옥 성도 - 10/18
- 박두환 집사 장남 김주필 - 10/24

▶ ***이사***
- 이해준 · 오정희 집사 / 반포 주공3단지
- 박희택 · 이화정 집사 / 서대문 독립문 극동A
- 정병태 · 김영숙 집사 / 옥수동 한남하이츠 2-605 (291-6941)
- 김애란 집사 / 강남구 대치동 쌍용A 3-208
- 정성권 · 김애리 집사 / 잠실 주공5단지A 518-306
- 최희윤 · 조신호 집사 /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A 2-708 (783-3445)
- 윤의탁 · 송경혜 집사 / 송파구 문정동 훼미리A 306-1003
- 정해천 · 오세심 집사 / 송파구 문정동 훼미리A 211-303
- 하영종 · 이정례 집사 / 중랑구 신내1동 중앙하이츠 4-601 (432-3918)
- 박윤행 · 이동명 집사 / 강남구 양재동 389-3 정원빌리지 302호(568-0562)
- 김경영 · 박은옥 집사 / 강남구 논현동
- 이명란 / 서초구 잠원동 설악A 2-112

▶ ***창업 · 이전 · 인사이동***
- 박서란 집사 / 인사동 전통찻집 개업
- 박상호 집사 / '유니온 마킹' 개업
- 이영선 성도 / 분당에 Lee 미용실 개업(0342-716-7252)
- 김동근A 집사 / 의류, 장신구 수출입업 개업(579-2722)
- 정정태 · 이경신 집사 / J. L 해운 항공 개업(777-6742)
- 김상균 집사 / 제주지방법원 전근(9/1)

▶ ***이민***
- 지인숙 집사 / 캐나다 이민(9/3)

▶ ***입대 · 제대***
- 한규진(한윤경 장로 · 임선자 권사 3남) 입대 - 8/24
- 정태원(박영남 집사 장남) 입대 - 8/24
- 류상길(류달현 집사 아들) 학사장교 입대
- 정희석(정규창 장로 · 남옥련 권사 아들) 제대

▶ ***출산***
- 김소일 장로 · 김영희 권사 득손

못 말리는 천사들

형광등

구약의 엘리야는 제자인 엘리사와 함께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에 의해서 승천하게 된다.
두 선지자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불수레와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 천사는 엘리야를 데리고 승천하게 되었다.
그렇게 한참을 하늘로 올라 가다가 엘리야를 태운 수레의 분위기가 불수레임에도 불구하고 썰렁한지라 그중 한 천사가 엘리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다.
천사1 *: 그래 엘리야야 ! 이 땅에서 힘쓴 너의 수고가 하늘에 다다랐느니라.*
이후로 천국에 가면 너를 위한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엘리야의 안색이 갑자기 바뀌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또다른 천사가 긴장한 듯이 보이는 엘리야를 다시 한번 위로하였다.
천사2 *: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너에게는 더 이상의 고통과 눈물이 없고 영원한 기쁨만이 있을 것이야!*
그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엘리야는 난감해 하다가 입을 열었다.
엘리야 *: 저 천사님 !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엘리사 인데요!.....*
천사1, 2 *: 안돼! 마차돌려!!!!!!!*

교회소식

정신학원 대강당 준공, 11월 첫주 입당예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온 성도의 기도로 1997년 8월 5일 기공 예배와 함께 행한 정신학원 대강당이 드디어 1998년 10월 2일자로 준공허가 되어 1998년 11월 첫째주일 1998년 11월 1일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입당 예배를 시작으로 새로운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되었다.

1. 준공된 대강당의 규모는
   - 2,232명이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대강당과 340석 규모의 중강당
   - 192석의 식당
   - 10명 동시 수용 능력의 5인 1실 기준 사무실 20실
   - 30~40평 규모의 기도실 세미나 및 집회실 7실
   - 당회장실, 교역자실, 교회 사무실 및 회의실, 학교 전용 기념관 및 동창회 사무실
   - 기계실 및 지상 150대, 지하 30대가 동시 주차 가능한 연면적 2,389평의 지하 1층, 지상 4층의 중앙공급식 냉난방 시설의 현대식 건물
2. 건축에 소요된 예산은
   - 도급공사 74억 3천 1백 66만 4천 9백원(학교 부담 10억원)
   - 설계, 감리, 직영 및 부대 시설공사비 약 11억원

   총 85억원으로 공사비 집행은 선공사후 분할방식으로 집행된다.
3. 또한 설계와 감리는 (주)우리건축(대표 이귀영 집사)이, 도급공사는 (주)강산건설(대표 박재준 집사)이 담당하여 98년 10월 2일자로 준공허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며, 본 강당은 98년 11월 10일로 예정된 준공예배시 우리 주님의교회에서 기증절차를 거쳐 정신학원으로 정식 기증하게 된다.

장로 · 안수집사 · 권사 피택

'장로 · 안수집사 · 권사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9월 27일, 10월 4일 두 차례 열렸다. 1, 2차에 걸친 투표결과 피택된 분들은 다음과 같다.

- 장로 피택자 - 윤좌원
- 안수집사 피택자 - 이종석
- 권사 피택자 - 고초순

예배시간 및 장소 변경

11월 8일(주일) 예배부터 예배시간 및 장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 주일 낮예배
  - 1부 : 오전 8시30분, 정신여중 · 고 강당(대강당)
  - 2부 : 오전 11시, 정신여중 · 고 강당(대강당)
- 교회학교 및 청년부
  - 영아부~소년부 : 오전 11시, 정신여중 · 고 강당(교육부실)
  - 중고등부 : 오전 8시30분, 정신여중 · 고 강당(교육부실)
  - 청년예배 : 오후 1시, 정신여중 · 고 강당(중강당)
- 찬양 및 수요예배 : 시간 종전과 동일, 정신여중 · 고 강당(중강당)
- 새벽 및 목요기도회 : 시간 종전과 동일, 정신여중 · 고 강당(중강당)
- 구역장 성경공부 : 시간 종전과 동일, 정신여중 · 고 강당(교육부실)
- 각종 성경공부 : 시간 종전과 동일, 정신여고 강당(교육부실)

시

기도

서광석 집사

샛노란 몸짓 언어로
시편을 노래합니다
하늘 호숫가 숨결 도는
은행나무 가지들은

주님
아름다운 계절을 기다려 허락하신
예배처소는 감사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건물로 인하여 우리가 교만할까
하나이다
이 건물은 정신여고 강당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주인 되지 않게 하소서

때로는 마리아 같은 순종의 믿음이 피어나는
어린 딸들의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이 건물로 인해 우리가
다른 교회들보다 우월하다는 부질없는
교만의 싹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찬미의 맑은
샘터가 되게 하소서

깊은 침묵과 묵상으로 빚어내어
행함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예배처소로
허락하소서

목자는 목자로서 양떼는 양떼 자리에서
주님의 진리로서 참 자유함을 얻는
21세기 초대 교회로 허락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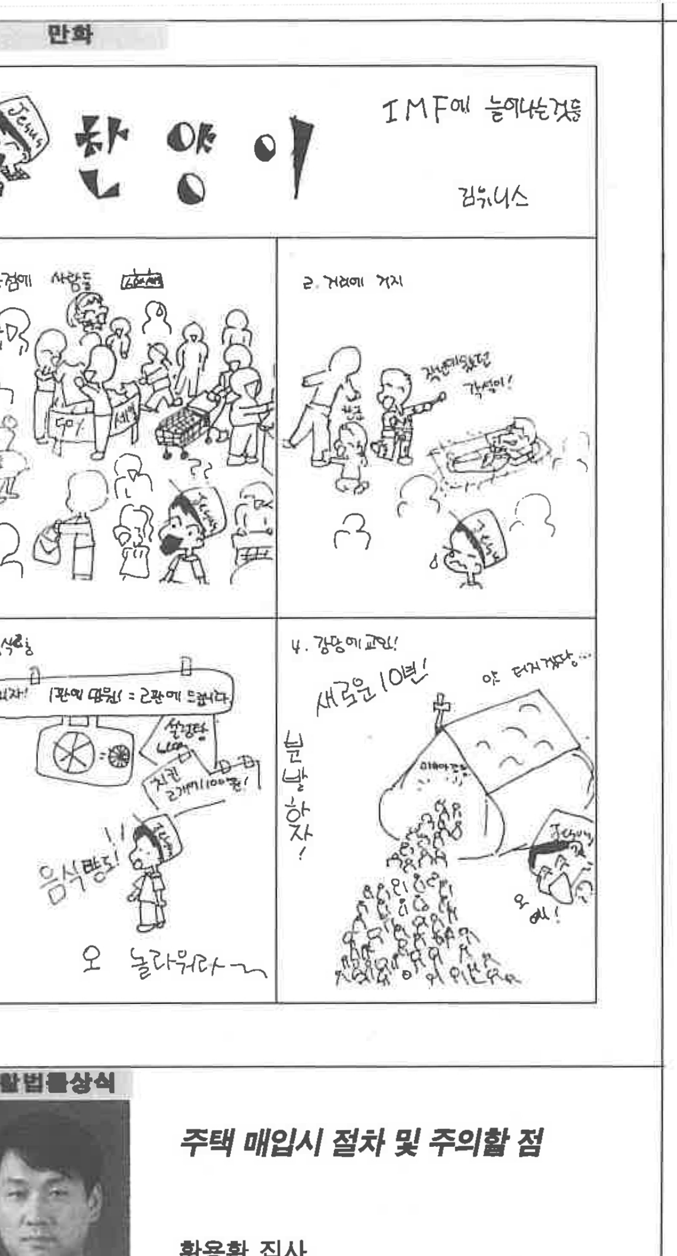
인간의 소견으로 다투어
분열하지 않게 하시고
대를 이어 열매 맺는
믿음의 처소로 허락하소서

주님이 주인되시는
영원한 주님의교회를 허락하소서

함께 즐거워 하고 함께 울라 에서는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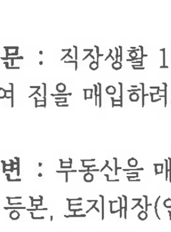
하늘을 향해 다 함께 웃고,
힘든 일도 다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원고를 기다립니다.

만화



한량이
IMF에 늘어나는것들
김유니스
1. 백화점에 사람들
2. 거리에 거지
3. 음식점
피자! 1판에 6000원! = 2판에 드립니다.
음식빵!
오 놀라워라~
4. 강당에 교인!
새로운 10년!
부흥하자!

생활법률상식



주택 매입시 절차 및 주의할 점

황용환 집사
(변호사)

질문 : 직장생활 10여년만에 주택 한 채를 구입할 자금을 마련하여 집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 및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답변 :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해당지번 및 지적을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임야인 경우 임야대장), 가옥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용도지역확인원 등을 열람한 후 현장과 대장을 비교하여야 한다. 특히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도 파악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 등본만을 믿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단시일내에 권리자가 몇 번 바뀌는 등 권리변동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일단 의심을 갖고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가지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 매입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재산세 납세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유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며, 대금지급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등기부는 중도금, 잔금 지급시마다 그 직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끝으로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류 등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